녹색금융 세미나 자료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2009. 5. 13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
김상협

차 례

Ⅰ. 추진 배경

1. 왜 녹색성장인가?
2. 더 절박한 한국

Ⅱ. 녹색성장의 개념 틀

1. 녹색성장의 의미
2. 녹색성장의 3대 중심축

Ⅲ. 녹색성장 정책방향

참고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참고2. 기후변화협상 대응방안

I. 추진배경

1. 왜 녹색성장인가?
2. 더 절박한 한국

1. 왜 녹색성장인가?

■ 환경위기와 자원위기 동시 직면

- 기상재해와 생태계파괴 등으로 인류의 생존 위협
  - 지난 100년 지구기온 0.74℃ 상승, 금세기말까지 6.4℃ 상승 예상
  - 화석연료 다소비체계 지속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손실 전망: 매년 세계 GDP의 5~20% ('06, 스턴보고서)
- 에너지·자원부족 및 가격상승
  - 신흥 개도국의 경제개발, 세계인구의 지속적 증가가 원인

< 미래를 위협하는 3대 트랜드 (2008.9, 토마스 프리드만) >

- Hot (지구 온난화) : 55%가 CO_2증가에 기인
- Flat (세계화와 중산층 확산) :
  '09.2월 The Economist 중산층 특집(등소평과 Manmohan Singh)
- Crowded (인구 증가)

■ 세계는 지금 Green Race 중!

– ‘요소투입’ 위주의 기존 경제성장은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한계도달

– 녹색기술 육성 및 환경규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추진

•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울리히 벡 뮌헨대 교수)

< 주요국 사례 >

- EU : 20-20-20 기후변화 패키지법 (’08.12월)
  ’0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 일본 : 이노베이션25(’07.5월) Cool Earth 50 Partnership
  후쿠다 비전(’08.6월) : ’50년까지 80% 감축
- 미국 :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 투자, 신재생에너지 집중 육성, 500만개 일자리 창출, Cap & Trade 도입 공약
- 덴마크 : 에너지 자립국가 및 세계1위 풍력대국으로 부상
  (에너지 자급도: 5%(‘80년) → 145%(‘06년)), ’07년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
- 영국 : ’90년 대비 ’50년까지 80% 감축, ’20년까지 풍력발전 7천기 건설
- 프랑스 : ’07년 환경에너지지속가능국토부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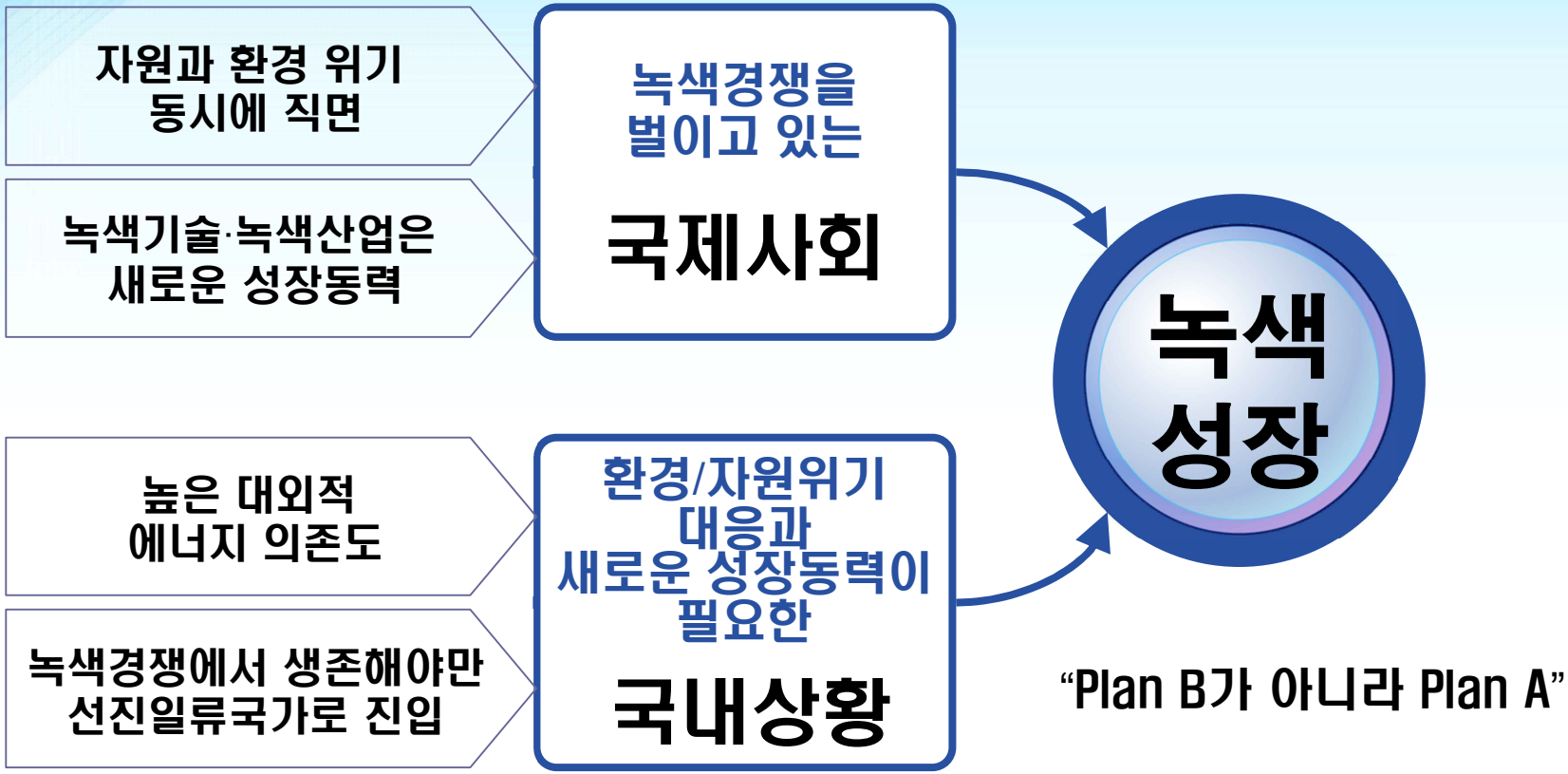
2. 더 절박한 한국

- **더 심각한 기후의 역습**
  - 기상청 설립이래 습도가 가장 낮았던 한 해 (2008년)
  - 100년(1912~2008) 연평균기온 1.7C 상승(세계평균 0.74C 상승)
  - 지난 40년 제주도 해수면 22㎝ 상승(세계평균의 3배)
  - '02년 태풍루사 : 강원도 1일 강우량 870㎜, 5조원 피해
- **높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
  - 10대 에너지소비국 : 총에너지원의 97%를 수입에 의존
    - '08년도 에너지수입액은 1,415억불로 수입액의 32.5% 차지
    - 1인당 에너지소비 5위
  - 에너지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급증
    - 에너지 소비 증가율 1.1%, 총에너지원 83%가 화석연료 ('07년)
    - 이산화탄소 배출량 9위, 누적배출량 22위, 증가율 2.8%

- **OECD 최하위 수준인 녹색경쟁력지수 (SERI)**
  - 기후변화 심각하게 인식하는 기업 : 국내 41%('08년), 전세계 90%('07년)
- **'녹색경쟁'의 시대적 흐름에 앞서나가지 않고서는 일류 선국국가로 진입 불가능**
  -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 (대통령, 8.15 경축사)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Plan B가 아니라 Plan A"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고, 이미 가고 있는 길

※ 경제위기는 녹색성장의 걸림돌인가?

- **일각의 우려**
  - 경제위기와 저유가 추세에 밀려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것
- **"석기시대는 돌이 없어 끝난 것이 아니다"**(Code Green)
  - Oil Peak : '26-'47년 (美에너지부, 현재 채굴가능 매장량 2조 배럴)
- **주요국은 녹색성장을 경제 활성화의 핵심정책으로 인식**
  - 영국 브라운 수상 : G-20 London Summit에서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방안으로 Low Carbon Recovery를 제안
  - 도이치뱅크 : 금융위기와 경제불황이 녹색 인프라 확충의 기회
  - 한국 그린 뉴딜 추진 : '12년까지 50조, 95만명
  - IEA, 세계유가 2030년 200불 이상 전망 (IEA 사무총장: 2년뒤 급반등)

※ Global Agenda Council : Green Agenda가 세계의 핵심 화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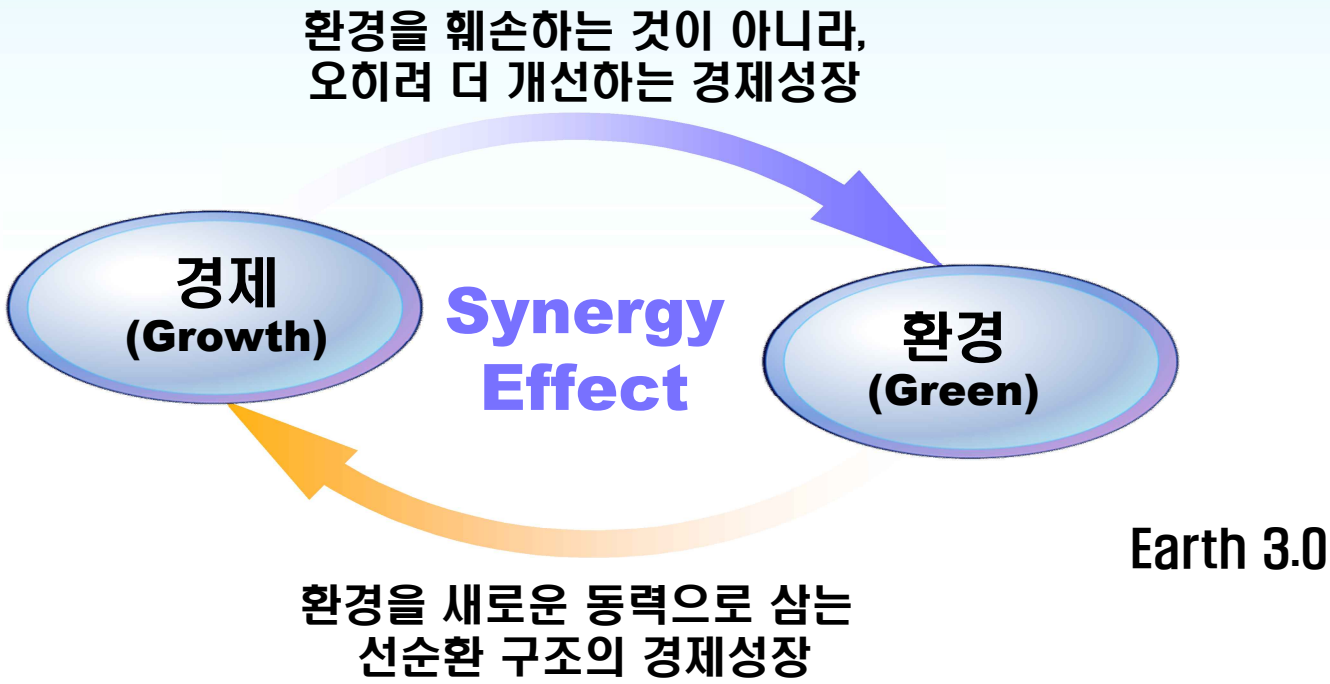
Ⅱ. 녹색성장의 개념

1. 녹색성장의 의미
2. 녹색성장의 3대 중심축

1. 녹색성장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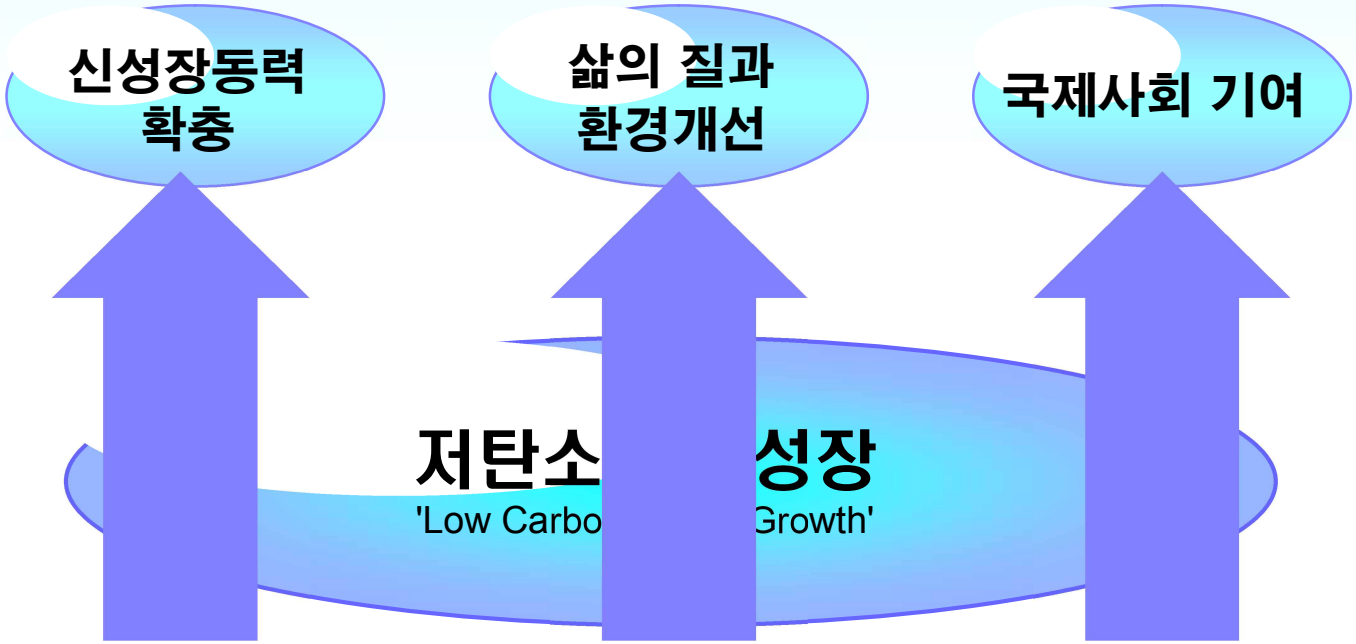
- **녹색성장은 살아있는 개념**
- **새로운 문명, 새로운 변화와 질서를 수용하는 복합적이고도 열린 개념 (Open-ended Concept)**
  - 정부와 국민, 기업과 시민사회가 주체별로 공유된 비전을 바탕으로 이를 창의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 **환경**과 **경제**가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



2. 녹색성장의 3대 중심축

- **녹색성장은 '1석 3조'의 미래 국가비전**
  - 신성장동력 확충과 좋은 일자리 창출 : Green Ocean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 개선
  -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



Ⅲ. 녹색성장 정책방향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

1.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2. 녹색기술의 새로운 성장동력화
3. 일자리(Green Collar Job) 창출
4. 기업의 경쟁력 제고
5. 국토와 도시, 건축과 교통 개조
6. 소비에서 의식주까지 바꾸는 생활혁명
7. 녹색 교육과 문화 확산
8. 환경친화적 조세·금융시스템 확립
9. 선·개도국간 가교 역할
10. 국가브랜드 제고

1. 녹색성장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에너지 패러다임이다.

■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녹색성장 **5**대 비전(2008-2030)

5대 비전	지표	2006년	2030년
에너지자립사회 구현	자주개발률	3.2%	40%
	신재생에너지보급률	2.2%	11%*
에너지 저소비사회로의 전환	에너지원단위 (총생산대비 투입에너지양)	0.347 (日 0.11, 獨 0.18, 美 0.21)	0.185
탈석유사회로의 전환	석유의존도	43.6%	33%
더불어 사는 에너지사회 구현	에너지빈곤층 비율	7.8%	0%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에너지기술 수준	선진국 대비 60%	세계최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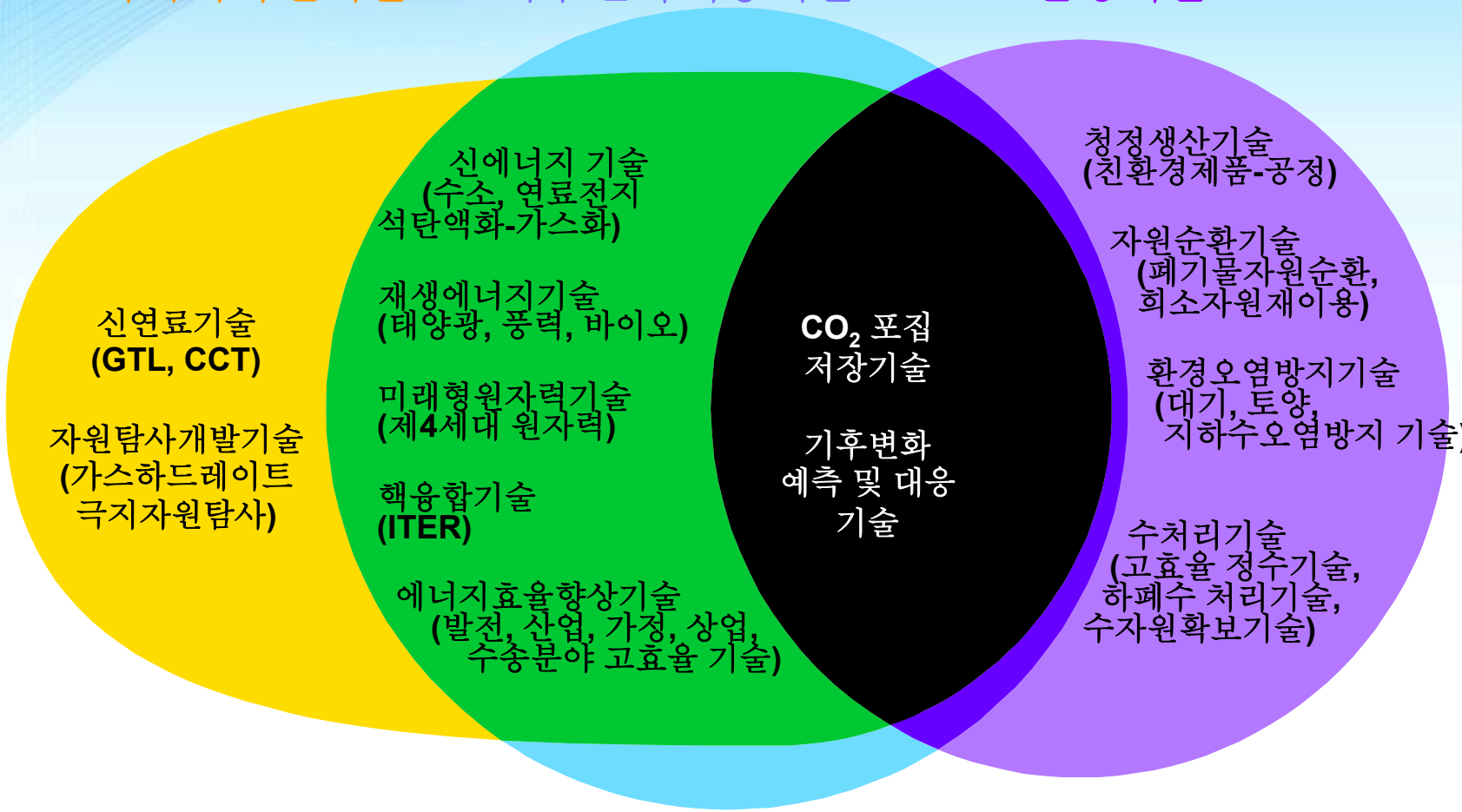
* 110조원 규모의 투자 소요

* 민간 6대기업, 2012년까지 그린 에너지에 8조원 투자계획

2. 녹색성장은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다

- 녹색기술(GT, Green Technology) :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기술
  - . 기후변화 대응기술, 에너지 · 자원기술 및 환경기술 등을 망라
    - **-** 녹색기술 시장 규모는 **2020**년 **3**천조원 예상
    - **-** 도이체방크, **2050**년까지 에너지분야 **45**조 규모 투자 예상
  - . 선진국과의 격차는 **5-10**년
- 유망 그린에너지 기술의 전략적 선정 및 중점육성
  - . 태양광, 풍력, LED, 전력IT
  - . 수소연료전지,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석탄액화 / 가스액화, 에너지저장, CCS
- IT, BT, NT의 융합녹색기술을 수출산업화
  - . 자연에너지 이용 그린홈 기술 **(ET+NT+IT+BT) :**
    태양전지 / 초단열 창호 / 통합관리 네트웍 / 자기정화 가전제품 등
  - . 수소에너지 생산 및 적용기술 **(ET+NT+IT) :**
    바이오매스와 태양광을 이용한 수소 생산-저장 및 연료전지를 적용한 그린카 등

녹색기술의 범위



※ **IAEA : 2030년까지 원자로 309기 건설 전망**

우리는 세계6위 원자력 강국 (최근 10년 경수로건설 경험 한/일/프 3국만 보유)

3. 녹색성장은 일자리(Green Collar Job)를 만든다

■ 녹색기술은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를 치유

• 신재생 에너지산업은 기존산업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 (태양에너지 이용분야 : 7~11배)

- 독일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50만명 신규고용(태양광 분야 10만명)
- 덴마크 : 풍력터빈 산업에서 2만명 고용
- HSBC "A Climate for Recovery" : 녹색산업은 화석연료기반 산업보다 2배 일자리 창출

*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2030년까지 약 95만 명의 일자리 창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2012년까지 Green 사회적 기업 400개 육성(2만개 일자리 창출)

- 친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사업, 재활용분야, 지약생태환경 및 문화재 관리 분야 등

4. 녹색성장은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 EU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 규제
  - 개도국을 견제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을 통해 성장 및 실업문제 해결
    * **EURO-V**(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 **'07**년부터 ㎞ 당 **200g**이상 온실가스 배출차량은 탄소세부과, **'12**년부터 **130g**초과시 **1**대 **1g**당 **20**유로 벌금
    * **REACH**(화학물질 위해성관리)
  - 미국도 「그린 장벽」 설치 움직임
- Post 제조업시대의 성장엔진으로서 '요소집약형'에서 '지식집약형'으로 전환
  - 산업·기술간 융합을 통해 미래 **Megatrends**에 대응하여 신기회를 포착
  - 기존산업의 포기가 아니라, 녹색기술 접목으로 융합기술 산업화

< 주요 기업 사례 >

- 도요타 : 녹색기술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출시(**'97**년)
- 가스프롬 : 탄소배출권을 수출상품화
- **Vestas** : 선박/건설기계에서, 세계**1**위 풍력터빈 생산기업으로 도약

주력산업의 Green Transformation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

<저탄소형 산업구조>

- 지식서비스산업육성
- Green Ocean 발굴·육성
- R&D 시스템의 혁신
-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 기후변화대응 지원
- 녹색경영 활성화

<가치사슬 녹색변환>

- Green Standard 정립
- Green IT 추진
- Green Hub Korea 구축
- 녹색 유통·물류 혁신
- 국제환경규범 대응 및 선도
- 산업계 자원생산성 혁신

<주력산업 녹색혁신>

- (조선해양) 미래형 신개념 선박· 해양시스템
- (일반기계) 고효율 청정생산기반
- (철강) 공정혁신을 통한 에너지효율 혁신
- (석유화학) Eco- 산업단지화
- (가전) Energy Saving & Ecology 가전
- (섬유) 초경량 그린 섬유소재 산업화
- (반도체) 초저전력 고효율 그린 반도체
- (Display) Aqua-Green Window Display
- (자동차) 저탄소 플러그인차

탄소섬유
LED, 태양광패널
AMOLED
연료전지차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IGCC
- (화석연료청정화) 석탄액화, 가스액화, CCS
- (효율향상) LED, 전력T, 에너지저장, 소형열병합, 히트펌프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저탄소 경제 에너지구조>

- 에너지사용효율의 개선
- 에너지 시장의 효율화 및 합리적 가격체계 구축
-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 원전의 공급능력 및 국민이해기반 확충
-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 기후변화대응역량 강화
- 에너지 기술혁신
-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 에너지복지·에너지 안전사회구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5. 녹색성장은 교통, 건축 및 도시와 국토까지 바꾼다

- 그린카 전략적 육성 (세계 4강 목표)
  - 온라인 전기차(급속충전), 연료전지차 :
- 저비용・친환경 Green 인프라 구축
  -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 및 지능형 교통체계(**ITS**) 활용
  - 전용도로를 확충해 자전거 생활화 (수송분담률 현재 **1.2%**에서 **2012**년 **5%**수준)
  -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 그린홈・그린빌딩 확대(건물은 에너지 먹는 하마)
  - 태양열, 지열, 풍력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 **40~55%** 저감
  - **2020**년까지 저에너지 친환경주택인 그린홈 **100**만호 보급 및 **100**만호 개량
  - Smart Grid, LED조명 (30% 대체시 100만㎾ 급 원전 2기 절감)
-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국토공간 조성
  - 도시공간을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 (* **Compact City** 등)
  - 국토계획에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 반영,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지역 개발

6. 녹색성장은 소비에서 의식주까지 바꾸는 생활혁명이다

- 녹색성장의 견인차로서 소비자 역할 강화
  - **에코라벨링(Carbon Footprint 등), 기업환경정보 공시제도 등 정보공개 강화**
    - → 소비자 주권의 실현 및 녹색제품 구매 유도
    - → 녹색제품 구매에 우선순위 부여 등 정부의 솔선수범
  - **미국 1인당 연간 800kg 곡물 소비(700kg은 축산사료), 이태리 400kg , 인도 200kg**
- 의식주 생활습관 총체적 개선
  - **공감대 형성 및 생활속 실천문화 정착**
    - → 자전거 이용 확대, 에너지·물 사용 절약, 쓰레기 줄이기 등 **Life-style** 변화
    - → 가정, 기업, 학교 등에서 절약하는 에너지양에 따라 이를 점수로 환산해 혜택 부여
      (탄소 마일리지, 강남구 시범운영) : 일본은 종이컵도 실명제
  - **에너지 절약은 제5의 에너지 : 10% 줄이면 140억불 수입절감 효과**
  - **서머타임, 식목일**(소나무과 백합나무), **식탁 마일리지와 FTA, 쓰레기 종량제**(재활용률 15%→45%)
- 탄소중립행사의 확대 (예: 2008년 건국 60주년 8.15 경축식)

7. 녹색성장은 녹색교육과 문화의 확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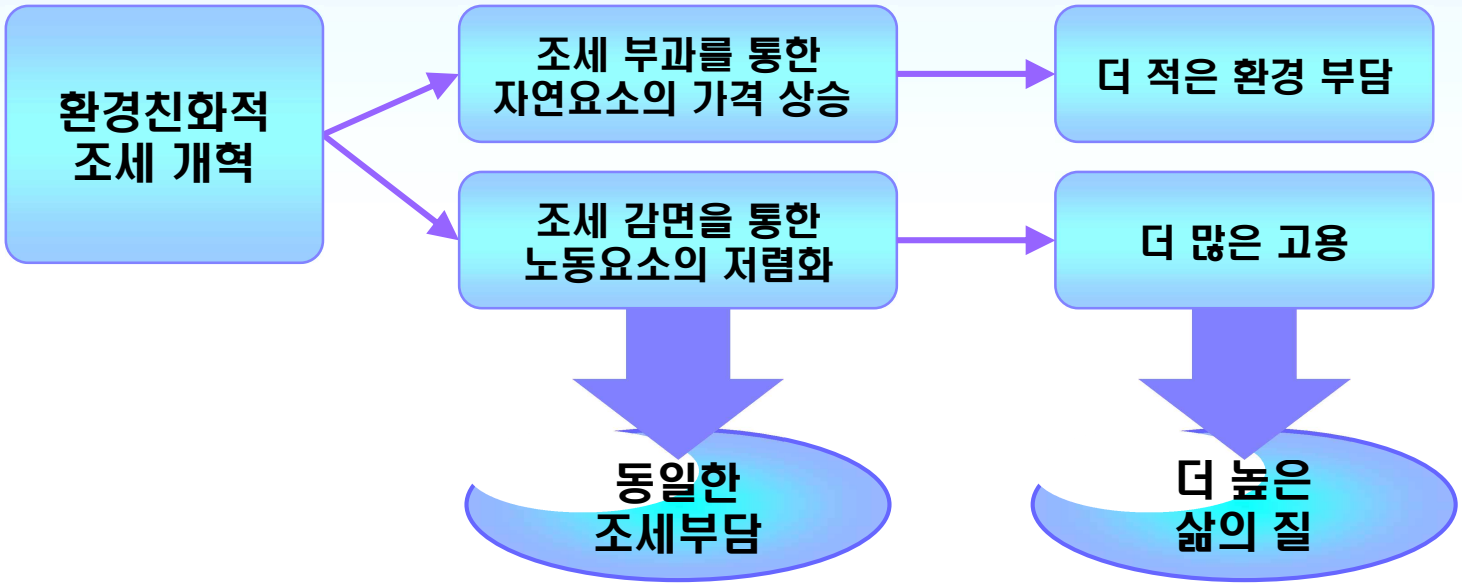
- 미디어와 교육을 활용한 Green culture 운동 확산
  - 교과서 등에 녹색성장을 반영해 녹색시민**(Green Citizen)** 육성
    - 생태문화 교육 및 국립자연사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 기후변화 노래 보급 등 놀이와 배움을 접목한 체험교육기회 확대 및 언론 등을 통한 홍보

- 문화·관광산업의 핵심요소로 “Green”개념 부각
  - 고부가가치 **Green tour** 문화 확산
  - 수도권매립지 관광자원화
  - 생태문화도시 모델 개발 및 재생에너지 생산지의 관광자원화
  - 문화 콘텐츠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실현)

8. 녹색성장은 환경친화적인 조세·금융시스템을 수반한다

'Earning Tax에서 Burning Tax로' (Al Gore)

- 환경친화적 조세를 통한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유도 및 일자리 창출
  -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에 대한 세금은 강화하되 소득세 일부 감면 등을 통해 조세부담의 중립성 유지



  - 가격과 세금이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동인

녹색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친환경산업 육성

■ 녹색금융의 사례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추이(억불) :** (06년)330 → (07년) 640 → (08년)920

2050년 전세계 5,000억달러 예상(스턴보고서, 2006년)

미국 배출권시장 규모 1,000억 ~ 3,000억 달러 예상(World Bank, 2007년)

- **날씨, 재해보험, 채권, 파생상품 등**
- **녹색 기술산업을 지원하는 펀드**

■ 실리콘밸리는 솔라밸리로 변신중

- **미국 벤처캐피탈의 태양광 분야 투자액 추이(억불) :** (05년)1.5 → (06년) 3.6 → (07년)10
- dot com 에서 watt com 으로 벤처캐피탈의 중심 이동
- 미국의 대표적 벤처캐피탈 "Kleiner Perkins Caufield & Byers"도 녹색투자
- 21세기 Google, Microsoft는 **녹색기업**에서 탄생할 것

- 초기시장의 높은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따라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을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
  - 기업여신 심사시, 친환경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부여
  - 녹색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 녹색기업에 대한 대출자산 지급보증 강화
  - 녹색기업의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전용펀드에 세제 혜택

- 환경위해 기업에 대한 대출 등 자금흐름을 적극적으로 통제
  - 중국 : 은행감독위는 환경보호총국의 처벌을 받은 기업의 리스트를 상업은행에 전달(환경위해기업 38개 중 12개는 대출이 거부)
  - 미국 : 상장기업의 환경보호국(EPA) 제재사실을 일정기간 동안 공시

9. 녹색성장은 선·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가능케 한다

- 기후변화 대응에 선-개도국간 가교 역할로 '그린 리더십' 확립
  - **Post-2012** 체제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
    - 이명박 대통령은 도야코 **G8** 확대정상회의시 기후변화 대응 관련, **2009**년중 중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 및 선·개도국간 가교역할 수행의지 표명
  -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2012**년까지 **2**억불 규모)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노력 지원
- 환경분야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유치, 외국과 환경협력협정 등 적극적 환경외교 전개

10. 녹색성장은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외교다

- 그린 코리아 브랜드 마케팅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 전략적 홍보 추진을 통한 글로벌 그린 국가로서의 국가 브랜드 정립

-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액 확대 및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 **2012년까지 ODA/GDP 비율을 0.15%, 2015년까지 0.25%로 확대**
  -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추진 ('08.8.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결정)**

-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는 Charming Enabler**

〈 손에 잡히는 녹색성장 10대 프로젝트(안) 〉

녹색 에너지	*똑똑한 전기*	스마트 그리드
	태양과 바람 그리고 꽃	신재생에너지
녹색 산업	*전기로 가는 차*	전기차
	빛을 내는 반도체	LED
녹색소비.녹색공간	*탄소발자국**	고효율.친환경 마크(식품포함)
	푸른집 똑똑한집 착한집	그린홈
녹색 환경	*맑은물*	수자원확보와 풍수해예방
	푸른산 우거진숲	식목, 육목
녹색 생활기반	*두바퀴로 걷기*	자전거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서머타임

녹색성장은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고, 이미 가고 있는 길

- 전세계적으로 녹색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국가경쟁력의 원천임
  (대통령, 8.29 확대비서관 회의)

녹색성장기본법

녹색성장민간협의체

(산업,과학기술, 금융, 생활, 지방)

코펜하겐 COP 대응...

계곡(Chasm)을 뛰어넘는
변화의 전략이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상력의 개념

- 누가 먼저 잘 움직이느냐 즉 “Early & Smart Mover"가 이기는 게임

참고 1.「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

1. 추진경과 및 필요성

   <참고> 선진국 입법 동향

2. 기본법 주요 내용

3. 기대효과

   ① 국가·기업 경쟁력 제고

   ② 삶의 질 향상

1. 추진경과 및 필요성

■ 추진경과

- '08.12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초안 마련
- '08. 12 ~ '09. 2 : 관계부처 협의
- '09. 1. 15 ~ 1. 29 : 1차 입법 예고
- '09. 2. 16 ~ 2. 18 : 2차 입법 예고(산업계 의견 반영)
  - 공청회 2회, 산업계 간담회 5회, 규제개혁위·법제처 심사
- '09. 2. 25 : 국무회의 심의 의결
- '09. 2. 27 : 국회 제출 → '기후변화특위'에서 심의

■ 조기 제정 필요성

- 저탄소 녹색성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제도적 기반 구축
- 관련법들의 연계와 정책적 시너지 미흡

<참고> 선진국 입법 동향(1)

〈미국〉

• '08 : Obama 대통령 대선공약 –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및 근거법 제정

• '09. 2 : Babara Boxer 상원 환경·공공위원장, 「기후변화법안」 제정 계획 발표

→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국가에 대한 무역규제 조치

• '09. 3 : EPA(환경청), 「Clean Air Act」 근거, 연방온실가스 의무등록제 도입 발표
(연간 25,000톤 이상 배출업체 대상)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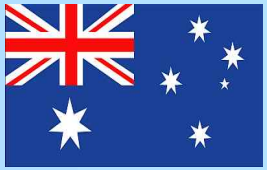
• '08. 12 : 「20·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 통과

* '20년까지 온실가스 20% 저감, 에너지 효율 20% 향상, 신재생에너지 20% 수준

• '09 : 「EU 배출권 거래제법」 개정

→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대상업체 확대

<참고> 선진국 입법 동향(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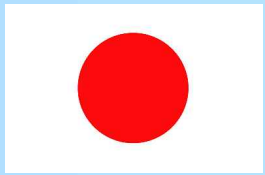
〈호주〉

• '07. 9 : 「국가 온실가스·에너지 보고 의무법(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제정

→ 기업체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생산·소비에 관한 보고의무제도 근거 마련

• 「기후변화 법안(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Bill」 발표

→ '10. 7 부터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실시



〈일본〉

• '97 :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 ← 교토의정서 후속조치

• '08 :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 '09. 상반기 : 「저탄소 사회 형성 기본법」 초안 마련중

2. 기본법 주요 내용(총 7장 65조)

■ 의의

– 기후변화·에너지·녹색산업·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포괄하는 세계 최초의 종합법

⇒ 기후변화 대응·녹색경제·산업·녹색생활 등 '녹색성장'을 포괄하는 국제적 모델 제시

※ '09.2월 프랑스 그르넬 환경법(Ⅰ) : 에너지, 기후, 건물, 원자력, 녹색소비, 종다양성, 지속가능발전 등을 다루고 있으나, 녹색기술, 녹색산업 등 성장측면은 미비

–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지원」 위주의 법이며, 규제는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항에 국한

2. 기본법 주요 내용(총 7장 65조)

■ 지원제도

-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 지원(제23조)
-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지원(제24조)
-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는 기술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25조)
-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금융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26조)
-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의 녹색화를 촉진(제27조)
-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해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유도 및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제28조)
- 자금모집·위험회피 등을 위해 정부가 출자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민간기업 등에 녹색성장 사업을 촉진하는 예산 지원(제29조)
-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보증 및 세제감면(제31조)
-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구축, 국제활동 등 지원(제32조)

2. 기본법 주요 내용(총 7장 65조)

■ 지원제도

- 대·중소기업의 녹색경제·산업·기술 공동사업 우선 지원, 대기업의 기술지도·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의 확대 지원 (제33조)
- 녹색기술·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구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출연(제34조)
- 녹색일자리 창출 활동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제35조)
-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준 등을 도입하는 경우 규제체계를 선진화(제36조)
- 외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제도·정책에 관한 동향 및 정보를 수립·조사·분석하고 대응체계 구축(제37조)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사용 목표 달성을 위해 경영지원, 기술적 조언,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 제공(제42조10항)
-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목표관리실적 인정 및 그 실적을 거래하는 조기행동 촉진(제43조)
- 저탄소·고효율·친환경 교통수단의 제작·보급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 연구개발(제47조4항)
-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특례, 자금, 조세감면(제55조8항)

2. 기본법 주요 내용(총 7장 65조)

■ 규제제도 :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되 '최소화'

-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사용·소비량을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공개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에너지 이용효율 등 목표 관리(제42조)
-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 도입,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거래소 설치·운영 및 도입시기 등의 근거 마련(제46조)
- 교통부문은 국제기준, 동향, 중복성 등을 감안하여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규정(제47조2항)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설계기준 및 허가·심의 강화 등 건축물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 마련 시행(제55조3항)
- 재화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및 등급을 소비자에게 표시·공개(제58조)

3. 기대효과

3-1. 국가·기업 경쟁력 제고

- 녹색경영 성과 공개는 윤리적 책임경영으로 연결
  - 에너지, 온실가스,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보의 공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기술 혁신·투자 촉진
  - 궁극적으로 세계시장에서 기업·국가 브랜드 제고
- 친환경 세제 운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 향상
  - 세제 개선(Price Signal)을 통한 고효율·저탄소 제품 생산 및 소비 촉진
  - 국민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수중립적'으로 운영(근로소득세↓, 탄소세↑)
-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대안중 배출권 거래제는 가장 친시장적 방안
  - 구체적 도입시기는 국제협상동향, 기업체 준비상황 등을 고려 결정(별도 법률 필요)
- 고효율 제품(예: 하이브리드車)의 경쟁력 제고
  - 선진국들이 온실가스기준을 무역장벽화으로 삼으려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3. 기대효과

3-2. 삶의 질 향상

- 저탄소·친환경 개발로 생활환경 개선
  - 탄소제로도시, 그린홈 등 저탄소 생활공간 마련
  - 대중교통, 철도, 자전거 등 효율이 높은 교통망 구축
- 녹색 일자리(Green Collar Job) 창출
  - 녹색 일자리 창출로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도모
  - 녹색기술로 '일자리 없는 성장'문제 치유

    * 녹색산업 투자는 화석연료기간산업 대비 2배의 일자리 창출 가능(HSBC, A climate for recovery)
- 체계적 물관리로 물부족·풍수해 대비
  - 기후변화로 악화되고 있는 가뭄·풍수해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 정책방향 제시
-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원자력 산업 육성과 수출산업화
  -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원자력의 안전관리 및 수출 진흥 도모

참고 2. 기후변화협상 대응방향

< 기본입장 >

- 범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
-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자율적' 온실가스 감축
-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감축목표치 제시

  국내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신뢰 구축

  ⇒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여지(carbon space) 확보

- 선도적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건설적 제안 제시를 통해 선진.개도국간 교량 역할을 수행하고 협상타결에 기여

※ 국력에 상응한 기여와 협상에 건설적 기여

- Post-2012협상에서 우리의 목표
  - 감축목표 및 이행방식에 있어서 자율성 확보
  - 경제성장에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여지 확보
- 범세계적 감축노력에 국력에 상응한 기여
  - 중기(2020년) 감축목표 금년중 발표 예정

※ 현재까지 Non Annex 1 당사국 중 2020년까지의 경제전반적 중기감축 목표 발표계획을 공표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멕시코 : 2020년까지의 부문별 감축목표 금년 중 발표 계획)

- 선진국과의 상이한 역사적 책임에 따라 자율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행동
- '09년말 코펜하겐 UN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성공적 타결을 위해 건설적 제안 마련